**- 로마서 8장 (21.08.20)**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원래는 정죄함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리고 그 정죄함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그랬는데

        이젠 예수님께선 아예 정죄함을 해결해주셨다.

        정죄함이 없으면

        양심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원리는 정죄함을 없애시므로,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승리의 비결은

        자신을 정죄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함을 없애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죄감 가운데 살지 말고

        연약함을 안다면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 Quiet Time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롬8: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 이다.

        다른 어떤 신분이 아니라,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

롬8: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뿐인데 자꾸 끌리고 그러나

        영의 생각대로 산다면 그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하는데

        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생각"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생각"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기도하고자하는 마음을 주시는 생각

        기도하면 할 수록 더 깊이있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생각

롬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롬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롬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떤 빚을 진 것인가

          성령을 보내어주신 것이 가장 큰 빚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빚이 어디에 있는가.

롬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게되는 이 원리를 마음에 품고

          죽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자

          죽이기 전에는 겁나던 것이

          죽이고 나면 그보다 더 편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본능 적인 것을 죽이면 좋겠다.

          근데 영으로써 죽이라고 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써

          곧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

          영으로써 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일이니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잘 살아야한다.

          기도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능력있는 시간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겠다.

롬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다.

롬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9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롬8: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롬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롬8:23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롬8: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 것이 또한 성령의 생각이다.

        인내하면, 지금 당장 안되는 것이 꼭 되게 하신다.

        인내하면, 참으면 반드시 이뤄진다.

        그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돕는 일을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께 나아가

          나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절대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롬8: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뤄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고

        그렇기에 온 천지와 피조물이 합력하고

        나의 상황과

        또 나를 교제로 인도해오신 하나님께서 합력하고 계신다.

        온 우주의 모든 운행을 합력해서 나를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롬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롬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와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사랑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못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주님 안에서 부족하다는 생각 다 필요 없다.

          계속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또 주님 안에서 변화시키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확신껏 살아가자

          나의 삶은 나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소망

          반드시 이뤄지는 이유는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